

신산업 창조를 위한 스마트그리드 버블을 기대하며



송석훈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사무국장

스마트그리드는 전통적으로 보수적이라 여겨지던 전력산업에 개방적인 정보통신기술이 융합된 산업으로, 전력 사업 선도국가이자 이미 세계적 IT기술을 지닌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좋은 입지의 사업이다.

2009년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앞선 스마트그리드 사업 추진 발표와 함께 국책사업으로 제주 실증단지 사업을 펼쳐왔으나, 5년여가 지난 지금은 그때에 비해 사업추진이 뒤처지는 느낌이다. 이는 관련기업의 과감한 투자와 사업추진이 부족했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스마트그리드 사업을 우리나라 산업경제 발전의 한 축으로 삼고자 했던 정부의 의지에 대한 관련 기업들의 의구심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할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발전방안을 모색하여 관련 산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으나, 아직도 산업계의 전적인 확신과 신뢰는 받지 못하고 있다. 2009년 스마트그리드 사업이 첫 삽을 떴을 때와 달리 그 열기가 상대적으로 많이 식은 지금, 우리는 스마트그리드 산업 활성화 방안의 해답을 우리나라 IT산업의 발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우선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발돋움하게 된 것은 불과 10여 년 전이다. 1997년 외환 위기와 IMF구조금융의 어려움 속에서 초고속인터넷과 이동통신사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산업육성 의지와 예산투자는 일명 'IT붐'을 일으켰다. 테헤란로 주변을 IT단지화하고 신생 인터넷 비즈니스를 가진 인터넷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국책사업과 연구과제가 추진 되었으며, 벤처캐피탈과 국책은행을 통한 지원으로 중소기업들의 큰 발전을 유인했다.

당시 많은 기회와 자본이 몰려든 만큼 이러한 발전의 이면에는 한탕주의와 도덕적 해이를 통한 자본 유출, 기술이 아닌 마케팅에 의한 투자 유치 등의 부작용이 발생했으며, 결국 2000년부터 재무부실, 회계조작, 과잉투자 등 수많은 버블들이 터지며 많은 문제를 만들기도 했다.

이후 이러한 산업자본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문제에 대해 많은 연구들과 자성이 있었고, IT버블은 주식버블, 신용버블, 부동산버블, 학력버블 등 다른 부정적 사안과 함께 항상 경계해야 할 사회경제적 현상으로 인식되었다. 이렇듯 많은 부작용을 생산해 낸 IT버블이었지만, 우리나라를 지금과 같은 IT강대국으로 만든 것 역시 사업초기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육성정책 하에 산업계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가 이루어진 'IT버블'이었다는 것도 부정할 수는 없다.

우리나라가 1960년대를 거쳐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를 꼽아보면 △국민 대부분이 대졸 이상인 고학력을 바탕으로 한 우수한 인재공급 시스템 △토목건축산업을 주축으로 국내외의 수많은 건설사업을 일으키고 경기를 활성화시킴으로써 국민과 기업의 자본축적을 가능하게 했던 부동산 시스템 △IT산업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서 광통신과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산업을 일으키고 세계적 기업인 구글과 야후도 넘보지 못하는 ICT강국을 만들었던 IT산업 지원 등인데, 이들은 모두 '버블'이라는 붐을 통해 만들어졌다.

화학반응에서는 실제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 장벽(활성화 에너지)을 넘어야만 반응이 완료 되어 안정화가 일어난다. 실제 필요한 에너지 이상의 장벽이 존재하며 이를 넘어 갔을 때에만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산업경제도 이와 같다. 우리나라의 과거 산업발전 경험을 볼 때, 스마트그리드 산업이 여러 산업의 강점을 융합하여 창조경제의 한 축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스마트그리드 붐이 필요하며 이 붐은 '버블'이라는 형태를 일부 가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진정 스마트그리드 산업을 발전시키고자 한다면 이 버블을 어떻게 일으키고, 어떻게 안정화시킬 것인지와 함께, 수반될 부작용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만약 과거의 성공만 기억하고 성공 밑에 숨어있는 많은 노력과 부작용들을 있는다면 새로운 산업을 만들고 발전시키는 것은 요원할 것이다. 이제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준비와 전략으로 '붐'을 일으킨다면,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들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다.

명량해전을 보면 단순히 12척의 전함으로 300여척의 적을 깨트린 전투가 아니라, 불과 몇 척이라도 전투에 임할 수 있는 전함을 보유하고 있던 수군, 장거리 포격이 가능한 함포를 제작하여 전함에 설치했던 기술력, 인근 바다를 모두 꿰뚫어 이용할 수 있었던 해양과학 등의 개별 요소가 백의중군하던 이순신 장군을 다시 보낸 인사(비록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와 융합하여 승리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스마트그리드 산업도 전력, IT산업뿐 아니라 수 많은 산업과 경제, 문화, 의지를 융합할 수 있을 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내년부터 시작될 스마트그리드 확산사업은 산업발전을 위한 명확한 의지와 적극적 지원, 그리고 정부 시설물에 대한 우선 도입 등을 통한 선행사례를 보이며, 다시 '스마트그리드 붐'을 일으키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기업은 성공할 수 있다면, 또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면 언제든지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 IT버블이 IT강국 코리아를 만들었던 것처럼, 또 수적인 열세에도 각각의 역량을 융합해 이끌어낸 명량해전의 승리처럼 전략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시장을 만들어내고 육성한다면 기업은 지금보다 더 많은 투자로 시장을 확대 시키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받는 스마트그리드의 미래를 만들어갈 것으로 기대한다. 